

격동의 시대 거치며 한국불교 초석 놓은 '큰스님'

대종사 東庵

(1) 연재를 시작하며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 해방, 미군정, 한국전쟁, 불교정화 등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거치며 수행자의 외길을 묵묵히 걸은 동암당(東庵堂) 성수(性洙, 1904~1969) 대종사(大宗師). 출가 전에 신교육을 받고 불문(佛門)에 귀의해 교학을 연찬하고 참선수행하면서 대중교화에 앞장섰다. 특히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 당시 선봉을 자임하여 왜색불교 청산과 청정수행가풍 회복에 기여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놓았다.

국가와 종단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종사의 수행일화와 업적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스님)와 불교신문(사장 현범스님)은 동암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하기 위해 '대종사 동암'을 공동기획 연재하기로 했다. 동암 대종사 손상좌인 도일스님(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도 뜻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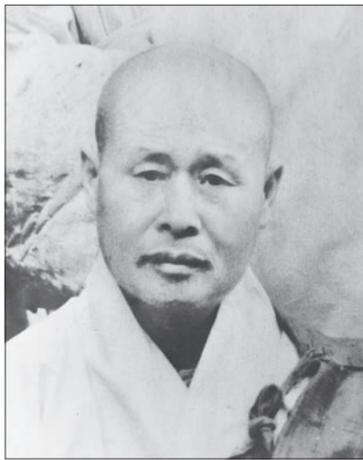
동암스님의 생애는 크게 출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04년 7월26일 평안북도 희천군 원흥리에서 부친 박봉오(朴鳳梧) 선생과 모친 최경오(崔慶吾) 여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속명은 박승수(朴承洙)이다. 고향인 원흥리는 1949년 북한이 평안북도에서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자강도(慈江道)의 동신군(東新郡)에 편입됐다.

동암스님이 출가 전에 지낸 평안도는 항일 의식에 팽배했던 곳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운동과 일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년 박승수'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으며, 훗날 스님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손상좌 도일스님은 "은사이신 초안 큰스님이 동암 노스님의 항일운동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면서 "출가 전에는 물론 출가 후에도 중국 상해, 북간도, 일본 등을 오가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회고했다. 동암스님은 1925년부터 10년 가까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해방 후 김구 주석 등 상해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당시 봉영회(奉迎會)를 만들어 회장을 맡아 환영행사를 개최한 이력도 있다. 이처럼 동암스님의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은 누구보다 투철했다. 출가수행자이지만 민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망국(亡國)을 극복하여 나라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동암스님의 민족의식은 평안도 정주군이 고향인 운허옹하(耘虛龍夏, 1892~1980)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향(同鄉)인 운허스님은 1921년 5월 경송(慶松)스님을 은사로 금강산 유점사에서, 동암스님은 역시 같은 시기에 인담(印潭)스님을 은사로 남양주 봉선사에서 출가했다. 출가자에게 속세의 인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허스님과 동암스님은 의기투합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동암스님은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일제에 저항하다 묘향산 보현사로 피신하였고, 운허스님 독립운동단체인 대동청년당(大同靑年黨)에 가입하고, <신한족>이란 독립군 기관지를 발간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양양 봉일사에서 은신한 공동집도 있다.

제25교구 봉선사(주지 초격스님)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스님이 다수에 이른다. 운허스님과 동암스님 외에도 항일단체인 조선민족해방협동단(朝鮮民族解放協同團)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윤경기흥(雲鏡



봉선사에서 출가한 동암스님은 수행정진하면서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과 불교를 중흥시키는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공=석굴암 도일스님

출가 전 신교육 받고 '불문' 귀의 봉선사 출가후도 독립운동 '참여' 참선수행하며 대중교화에도 앞장

불교정화 참여 종단을 반석 올려 공동기획을 통해 자료 행장 정리 동암스님 생애 '복원' 기회 될 듯

基弘, 1905~2000) 스님,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 봉선사 스님들과 부평리 만세운동을 주도해 옥고를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한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1898~1969)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도 봉선사 출신 스님이다. 또한 봉선사는 붕어(崩御)한 고종황제의 제사를 지내 무장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앞장 선 애국혼(愛國魂)이 서려 있는 곳이 봉선사"라면서 "조선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혼신을 다했던 동암스님의 뜻도 이번 공동기획 연재를 하면서 늦게나마 상세하게 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선사에서 출가한 동암스님은 이듬해인 1922년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龍城, 1864~1940) 스님의 법제자가 된다. 용성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만해(萬海, 1879~1944)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으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다. 출가 본사인 봉선사의 항일 분위기



1967년 5월 양양 낙산사를 방문한 윤보선 대통령 후보(왼쪽에서 세 번째)와 담소를 나누는 동암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동암스님은 낙산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었다. 출처=국가기록원

와 법은사인 용성스님의 독립사상은 동암스님의 소신과 일치했다. 동암스님이 1925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열거한 상황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용성스님은 1882년, 1883년 등 세 차례나 봉선사 말사인 파주 보광사 도솔암에서 3년간 머물며 정진한 이력도 있다.

1934년 봉선사에서 대덕(大德) 법계를 품수한 동암스님은 해방 전까지 수행과 전법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암스님은 동암 선사는 주로 참선 수행에 진력했다. 파주 보광사, 의정부 망월사, 금강산 마하연, 부산 범어사, 김천 직지사 등 제방선원에서 화두를 참구하며 정진했을 만큼 참선 수행을 중시했다. 1969년 원적에 들었을 때 불교신문을 비롯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간지도 스님이 독경(讀經)과 선(禪) 수행을 한 선사(禪師)라고 보도했다.

1920년대 후반 금강산 미륵선원에서 이백우(李白牛), 이운봉(李雲峰), 이효봉(李曉峰), 현패룡(玄龍龍), 조용명(趙龍溟) 스님 등과 하안거 결제를 하는 등 간화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에는 오대산 월정사(상원사)에서 한암(漢岩, 1876~1951)스님을 만나 법담(法談)을 나누는 일화도 전한다. 1968년 3월24일자 대한불교에 실린 '금

주의 설법'에서 동암스님은 "불교는 오직 수행의 종교"라면서 "자자자수(自作自修)에 대한 자기 인과의 길과 선리(禪理)를 닦아 자기를 창조하는 종교"라고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동암스님의 수행의 근간에는 참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동암스님의 또 하나의 '화두'는 불교정화였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에 침투한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효봉(曉峰, 1888~1966), 동산(東山, 1890~1965), 금오(金烏, 1896~1968), 청담(靑潭, 1902~1971) 스님 등과 뜻을 같이하며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71년 11월21일자 <대한불교(지금의 불교신문)은 "선객(大禪客)이며 한국불교정화운동에 공헌이 많은 동암대종사 추모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3주기 추모행사 소식을 전했다. 불교정화운동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관리하는 소임을 맡을 정도로 대중의 신앙을 받은 동암스님의 활약은 그 무렵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 성주사 조실 효교스님은 "정화운동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워 간장이 나 된장도 얻어먹을 때였는데 동암스님이 여러 경로로 재원을 만드는 화주(化主) 역할을 맡았다"면서 "동암스님이 조선 왕실과 관련된 임상궁 등과 교분이 깊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

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에는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법규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양양 낙산사(1962~1967), 영주 부석사(1967~1968), 선산 도리사(1968~1969) 주지를 지내며 정화후 혼란을 수습하는데 앞장섰다. 정화과정에서 보은 법주사, 김천 직지사, 서울 봉은사, 부산 범어사, 밀양 표충사, 도봉산 망월사 주지 소임을 봤다는 이야기도 전하는 등 종단을 반석에 올려놓은 것이 동암스님이다.

이밖에도 동암스님은 어린이포교와 사회복지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운회전생> <극락과 지옥> <아미타경(번역)> 등의 저서를 남기는 등 불교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1년간 이어질 '봉선사·불교신문 공동기획 대종사 동암'은 그동안 미처 조명되지 못한 동암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은 "공동기획에 흔쾌히 뜻을 내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의 사장 현범스님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늦은감이 있지만 국가와 불교를 위해 헌신하신 동암 큰스님의 행장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